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항

【문항 1】

[제시문]

6월 중순쯤에 접어들면 텍사스와 멕시코만 쪽으로부터 커다란 구름이 올라왔다. 높고 두꺼운 비구름이었다. 그러면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 냄새를 맡아보면서 침칠을 한 손가락을 치켜들고 풍향을 재어보곤 했다. 구름이 밀려오면 말들도 들떴다. 그러나 빗기를 머금은 구름은 한두 방울 비를 떨어뜨리다가는 곧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햇살을 뿌렸다. 빗방울이 두들겼던 토사 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곰보가 나고 옥수수 잎새마다 맑은 빗방울이 맺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중략)

밤이 이슬해지면서 바람은 별편을 쓸었고 사방에 정적이 깔렸다. 먼지 섞인 공기는 안개나 구름보다도 들판의 소음을 더욱 완전히 감싸 버렸다. 집 안에 갇힌 채 누워 있는 사람들은 바람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 폭풍이 멎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조용히 밤의 적막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닭이 울었다. 여기저기서 울어대는 닭의 목청이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집 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침 맛을 채비를 서둘렀다. 공중에 뜬 먼지가 다 가라앉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먼동이 트자 공중의 먼지는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고, 그 속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은 마치 선혈처럼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먼지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에까지 걸쳐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담요인 양 땅 위에 고루 깔렸다. 옥수수 위에도 울타리 위에도, 그리고 전깃줄 위에도 소복하게 쌓였다. 지붕마다 먼지가 입혀졌고 잡초와 나무들도 뿌연 담요에 감싸여 있었다.

(중략)

지주 대리인들은 차 안에 탄 채 소작인들에게 설명을 해냈다.

“땅이 몹시 메말라 있다는 건 잘들 아실 거요. 목화가 땅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니까 이렇게 황폐해 가는 거요. 참 용케도 오래 버티셨소. 안 그렇소?”

쭈그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어찌하면 좋을지를 아는 것은 아니어서 어리둥절한 채 그저 먼지 바닥에다 낙서만 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만약 먼지만 날아가지 않는다면, 먼지가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어만 준다면 농사가 그렇게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대

리인들은 설명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으로 이끌어 갔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땅이 점점 피폐해 가지 않소? 목화가 땅으로부터 자양분과 피를 다 빨아먹으니 그럴 수밖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작물을 윤작만 할 수 있어도 토양에 자양분과 기름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대리인들은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그 괴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열심히 설명했다. 누구든지 농사를 지어 먹고살고 또 세금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계속 땅을 갈아먹으라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다가는 얼마 안 가서 농사를 망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것이다.

(중략)

그들은 물기 하나 없는 여물통 가까이에서 발을 멈추었다. 여물통 밑에서 마땅히 자라고 있어야 할 잡초도 없었고, 오래 전부터 썩 온 여물통의 두꺼운 나무는 바싹 말라 금이 가 있었다. 우물 뚜껑 위에는 펌프를 붙들어 댔던 빗장이 있었는데, 그 철사에 녹이 슬어 나사가 다 빠져 나가고 없었다.

조드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다 침을 한 번 탁 뱉고 나서 귀를 기울여 보고 흙덩어리를 떨어뜨리고 귀를 대보았다.

“전에는 물이 참 좋았는데.”

그가 말했다.

“물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는 집 안에 들어갈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았다. 흙덩어리만 몇 개를 계속 넣어 보았다.

“아마 다 죽어버린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중략)

“뭇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데?”

조드가 물었다.

“아, 놈들 얘기가 근사하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알아? 먼지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걸 죄다 망쳐버리는 바람에 농사가 형편없었지. 개미 똥구멍을

막을 만큼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들 식품점에 외상을 지고 있었어. 너도 알잖아. 그런데 지주들은 소작인을 둘 여유가 없대. 소작인들하고 나눠 먹으면 자기들한테 남는 게 없다는 거야. 땅을 하나로 합쳐야 간신히 수지가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놈들이 트랙터를 갖고 와서 소작인들을 전부 쫓아낸 거야. 나만 빼고 전부. 난 절대 안 떠날 거야. 토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태어날 때부터 날 봤으니까.”

“맞아, 태어날 때부터 봤어.”

“그럼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도 알 거야. 이 땅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건 나도 알아. 처음부터 목장으로나 쓸 수 있는 땅이었지. 이 땅을 개간하지 말았어야 해. 그런데 여기다 목화를 심는 바람에 땅이 거의 죽어 버렸다고. 놈들이 나더러 떠나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난 지금쯤 캘리포니아에서 마음껏 포도도 먹고 오렌지도 따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개자식들이 나더러 떠나라고 했으니, 젠장, 그런 소리를 듣고 떠날 수는 없어!”

(중략)

66번 도로는 이주자들의 길이다. 미시시피 강에서 베이커즈필드까지 지도 위에서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곡선을 그리며 국토를 가로지르는 이 긴 콘크리트 도로는 붉은 땅과 잿빛 땅을 넘어 산을 휘감아 올라갔다가 로키 산맥을 지나 햇빛이 쨍쨍한 무서운 사막으로 내려선다. 그리고 사막을 가로질러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가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계곡들 사이로 들어간다.

(중략)

도망치는 사람들이 66번 도로로 쏟아져 나왔다.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자동차 여러 대로 행렬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느릿느릿 도로를 달리다가 밤이 되면 물가에 멈춰 섰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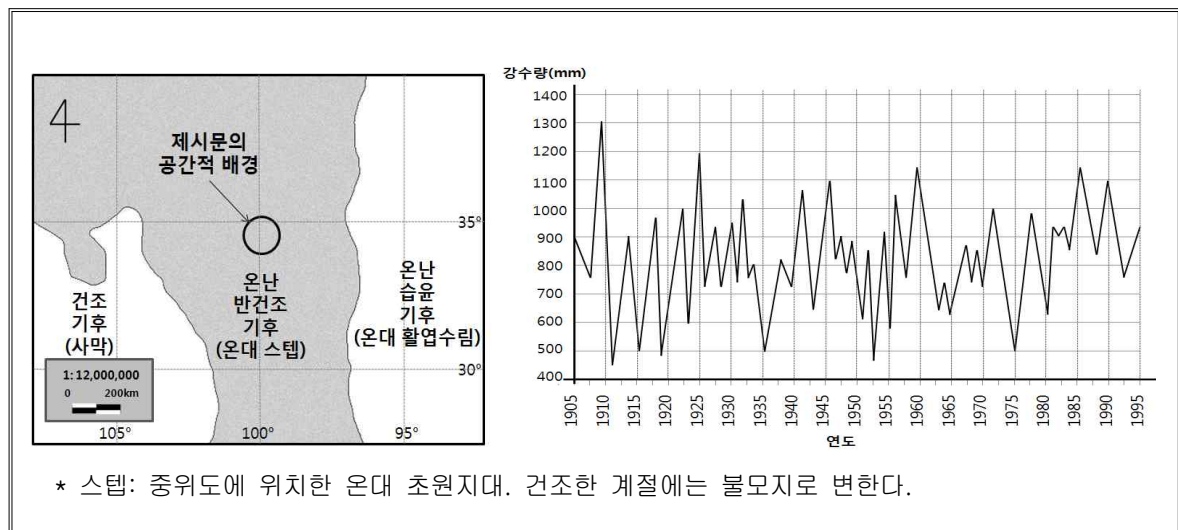
이주민들은 살 곳을 찾아 떠돌며 헤매고 있었다.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 40에이커의 땅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들, 그 땅에서 나는 음식으로 연명하거나 굶주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서부 전역에서 유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허둥지둥 돌아다녔다.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개울처럼 흘러 다녔고, 도랑둑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넓은 도로는 이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중서부와 남서부에서 살아온 소박한 농사꾼들은 산업화의 물결에도 변하지 않았고, 농사에 기계를 사용한 적도 없었으며, 기계가 개인의 손에 들어갔을 때의 힘과 위험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라면서 산업화의 모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들은 말도 안 되는 산업화된 삶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중략)

이주민들은 도로를 타고 계속 흘러들어 왔다. 그들의 눈 속에는 굶주림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장도, 조직도 없었다. 그들이 엄청난 숫자로 몰려온다는 것, 그들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일자리가 하나 생기면 열 명이 그 자리를 잡으려고 싸웠다. 낮은 품삯을 무기로 싸웠다. 저 사람이 30센트를 받는다면, 나는 25센트만 받겠다는 식이었다.

[그림]



※ 제시문은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일부이고, 위 그림은 제시문 전반부의 주요 배경이 된 지역의 기후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과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의 논제에 답하시오. (세 논제를 모두 합하여 2,200자 이내)

논제 1.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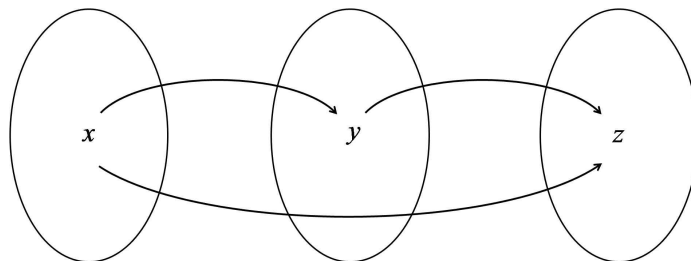
논제 2. 주민들이 원거주지에서 살기 어렵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논제 3. 제시문에 나타난 ‘이주’와 ‘잔류’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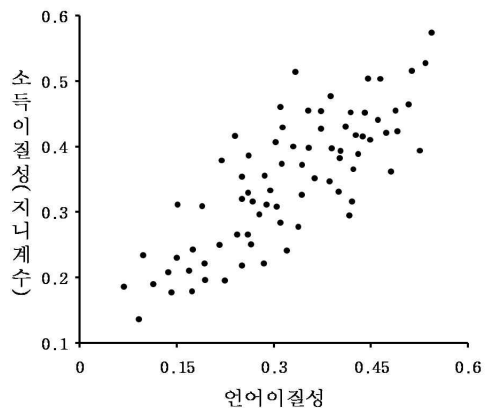
【문항 2】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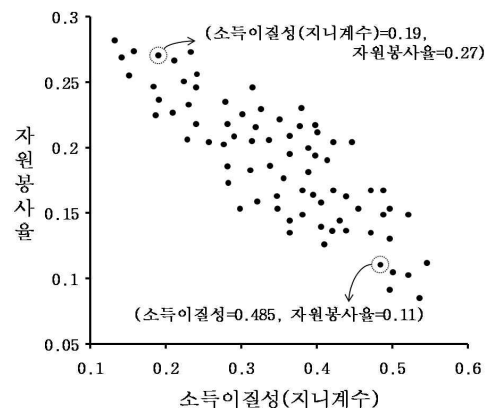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이 공동체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은 소득의 차이와 언어의 다양성을 지표로 하고, 공동체의식은 자원봉사율을 지표로 한다. 관계 분석을 위하여 N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가 A에서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x, y, z이라는 세 변수의 자료를 수집한다. 한 지역의 x 값은 언어적 이질성 지표, y 값은 소득이질성(소득불균등도) 지표, 그리고 z 값은 그 지역의 자원봉사율을 나타낸다. M 개의 언어 사용집단으로 이루어진 언어이질성 지표는 $1 - \sum_{i=1}^M s_i^2$ 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s_i 는 지역 내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섯 개이고, 개별 언어 비율이 (0.2, 0.2, 0.2, 0.2, 0.2)인 경우, 이질성 지표는 0.8이라는 최댓값을 가지며, 만약 그 지역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질성 지표는 최솟값 0을 갖게 된다. 소득이질성 지표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으면 0이라는 최솟값을 갖고, 지역의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면 1이라는 최댓값을 갖는다. 자원봉사율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다음 그림은 변수 x, y, z 간의 가설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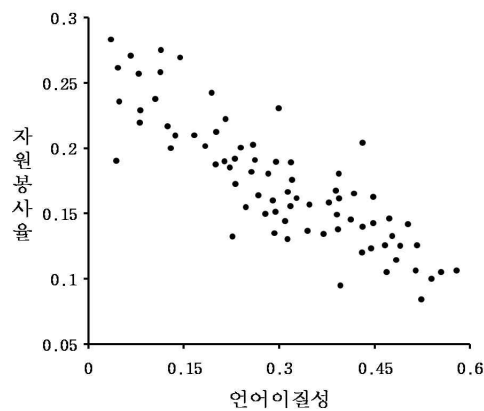
자료를 이용해 두 변수 간의 관계로서 x 와 y , y 와 z 그리고 x 와 z 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의 세 그래프 1-a, 1-b, 1-c와 같다.



그래프 1-a



그래프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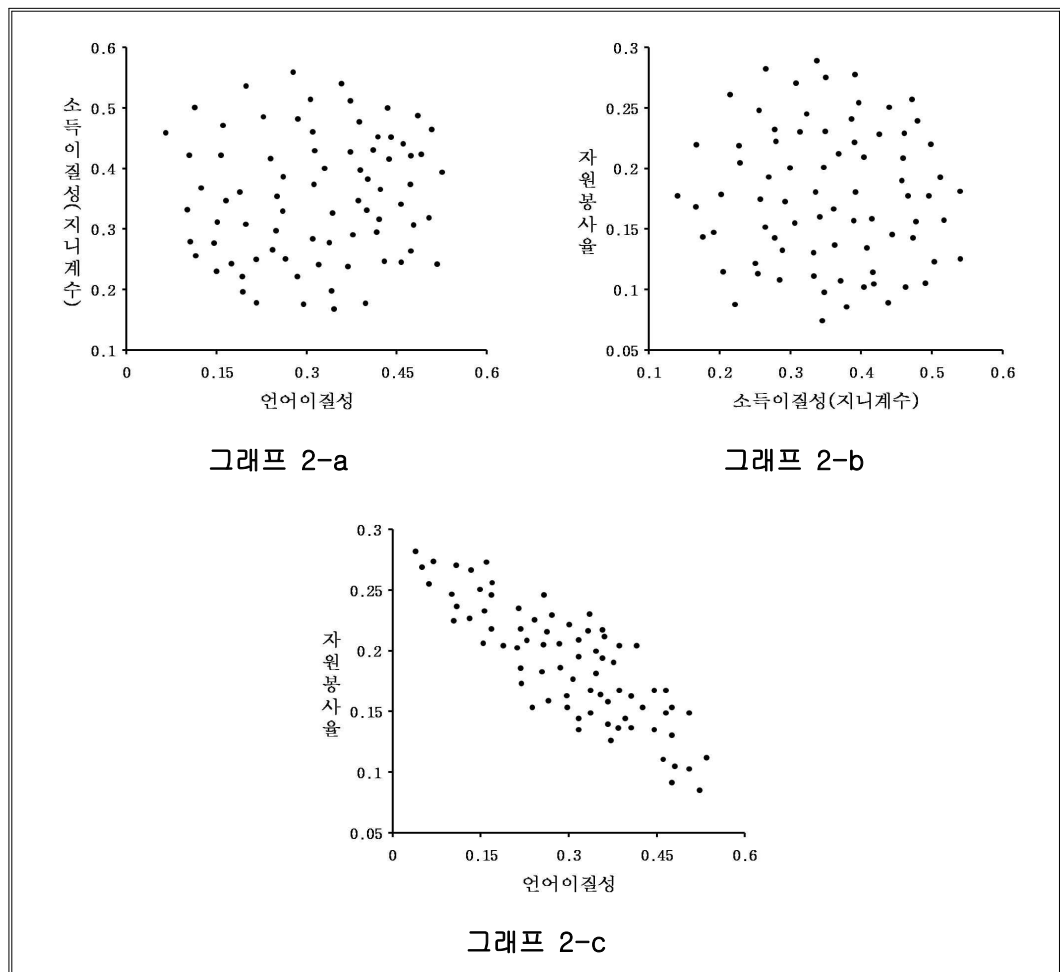


그래프 1-c

※ 제시문을 읽고 다음 세 논제에 답하시오. (세 논제를 모두 합하여 1,400 ± 200자)

논제 1. 세 그래프 1-a, 1-b, 1-c 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논제 2. 위의 제시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 B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그래프 2-a, 2-b, 2-c와 같다. 국가 B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이 그래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변수 x, y, z 간의 가설적인 인과관계를 참고하여, 국가 A와 국가 B에 대한 분석 결과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논제 3. 논제 1과 2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문항 3】

[제시문]

(가) 다음은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약술한 것이다.

- 1769년 8월 15일 지중해의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출생함. 나폴레옹의 집안은 프랑스의 코르시카 점령에 항의하기 위해 ‘파스칼레 파올리’가 이끄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나, ‘파스칼레 파올리’가 망명하자 프랑스 측으로 전향하여, 가문의 명칭을 ‘부오나파르테’에서 프랑스식인 ‘보나파르트’로 바꾸고 귀족 자격을 얻음.
- 1779년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로 건너가 유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함.
- 1784년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4년 과정을 불과 11개월 만에 수료함.
- 178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소위로 임관함.
- 1789년 바스티유 감옥 함락 소식을 듣고 프랑스 혁명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됨.
- 1792년 코르시카로 귀향하여 국민위병대의 중령이 되지만, 프랑스 왕당파와 가까웠던 ‘파스칼레 파올리’와 균열이 생겨 일가족과 마르세유로 도피함. 마르세유에서 유복한 상인 집안의 딸 ‘데지레 클라리’와 약혼함.
- 1793년 프랑스군 대위로서 왕당파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최초의 무훈을 세워 사단장이 됨.
- 1794년 공안위원장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여 처형된 후 감옥에 갇힘. 이후 석방되어 혁명 정부의 총재 ‘파울 바라스’에게 등용됨.
- 1795년 파리에서 왕당파의 봉기가 일어나자 수도 시가지에서 대포를 쏘는 대담한 전법으로 진압함으로써 사단장이 됨.
- 1796년 ‘데지레 클라리’와 파혼하고, 귀족의 미망인으로 ‘파울 바라스’의 애인이기도 한 ‘조제핀 드 보아르네’와 결혼함. ‘파울 바라스’에 의해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발탁됨.
- 1797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점령함.
- 1798년 이집트의 피라미드 전투에서 승리함.
- 1799년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왕정복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프랑스를 위협하자, 혁명 정부의 명령도 받지 않고 귀국함. 의사당에서 자신의 정부를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백인회가 이를 거부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오백인회를 해산함. 3명의 통령들을 두는 새 헌법을 만들어 국민 투표에 부쳐 원로원으로부터 10년 임기의 제1통령으로 임명됨.

- 1800년 연합국에 강화를 제의하지만 거절당하자, 실패할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알프스를 직접 넘어 마렝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킴. 이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함.
- 1801년 오스트리아와 강화하여 라인 강의 절반을 할양받음. 북이탈리아 등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만들.
- 1802년 종신통령이 되어, 자신의 독재권을 더욱 강화함.
- 1804년 각 지역의 여러 가지 관습법과 봉건법을 하나로 통일한 최초의 민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함. 국민투표를 거쳐 황제로 즉위함.
-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이끈 영국 해군에게 완패함.
- 1806년 대륙봉쇄령을 내려 유럽 국가가 영국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함. 프로이센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과 더불어 대프랑스 동맹을 조직하자, 10월에 프로이센군을 물리치고 베를린에 입성함.
- 1807년 폴란드로 진격함. 프로이센을 구원하러 온 러시아군을 격파함. 프로이센의 영토를 축소시키고, 폴란드 지역을 하나로 묶어 바르샤바 대공국을 세움.
- 1808년 스페인을 점령함.
- 1810년 황후 ‘조제핀 드 보아르네’와 이혼하고, 오스트리아 황제의 딸 ‘마리 루이즈’와 혼인함.
- 1812년 60만 대군을 이끌고 대륙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공격하여 모스크바를 점령함.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도시와 곡식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겨울을 넘기기 어려워 퇴각하다가 뒤쫓아 온 러시아군에게 대패함. 대프랑스 동맹이 새로이 결성됨.
- 1814년 대프랑스 연합군에 포위되어 3월에 파리가 함락됨. 나폴레옹은 퇴위를 강요당하여 지중해의 작은 섬인 엘바 섬으로 추방됨.
- 1815년 엘바 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돌아와 복위하나,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완패하여 백일천하가 끝남.
- 1821년 5월 5일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함.

(나) 손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 감정선: 마음의 움직임, 감정 등의 판단 근거
- 결혼선: 이성애에 대한 태도, 연애, 결혼 등의 판단 근거
- 권력선: 권력, 명예, 야심, 욕망 등의 판단 근거
- 두뇌선: 지능, 재능 등의 판단 근거
- 생명선: 건강, 체력, 수명의 장단 등의 판단 근거
- 운명선: 운세의 강약, 직업, 직장, 사회생활 등의 판단 근거
- 재운선: 금전운, 의식주 등의 판단 근거
- 태양선: 창의력, 인기, 재능, 명예, 행복 등의 판단 근거

문제 1. 나폴레옹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어져 있던 손금의 선을 칼로 그어 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제시문 (가)에 약술된 나폴레옹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하나를 들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나폴레옹이 언제, 어떤 마음으로, 어느 손금을 바꾸었는지 제시문 (나)의 내용을 토대로 상상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손금’은 나폴레옹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서술하시오. (800 ± 200자)

문제 2. 우리는 주변에서 손금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들고, 이 두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기술한 후, 인간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00 ± 200자)

[조건 1] ‘손금을 보는 것’과 유사한 행위들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사례를 들 것.

[조건 2] 두 가지 예 중 하나는 문제 1에서 서술한 손금에 대한 나폴레옹의 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할 것.

[조건 3] 자신의 견해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것에 대한 반박을 포함시킬 것.

※ 아래의 문제들은 서울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의 사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2012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2012. 2. 6>

- 서울대학교는 2012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를 1월 16일에 실시하였다. 응시 대상인원은 총 2,441명(인문계열 997명, 자연계열 1,366명,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78명)이며, 인문계열 학생에게는 5시간 동안 3문항(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2시간 동안 1문항),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5시간 동안 4문항이 주어졌다.
-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1)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 정도와, (2)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나아가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함과 동시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인문계열에서는 여러 교과 영역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위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연계열에서는 자연 현상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과학적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해, 분석, 적용하여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문항설명

【문항 1】

□ 출제 의도

-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 요인들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에 활용된 소설은 경제공황기 미국의 농촌을 피해하게 했던 자연환경적 그리고 경제사회적 원인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문항은 제시문 속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지리, 경제, 환경, 사회 등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관련 주제(기후변화, 건조지역의 생태학적 취약성, 과도한 농경으로 인한 토양침식,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소작농 몰락,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일거리 부족 등)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문항 설명

- 제시문은 소설 ‘분노의 포도’ 속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발췌한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은 소설의 배경이 된 지역의 기후 및 식생 환경을 보여주는 지도와 그래프이다.
- 논제 1에서는 소설의 일부를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소설 속 농민의 삶을 피해하게 만든 다양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농민들에게 닥쳤던 문제들을 이주 전과 이주 후로 나눠서 찾아보고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요인들을 각각 밝혀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인지 혹은 과도한 농경과 같은 인간의 영향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논제 2에서는 논제 1에서 설명한 여러 요인들 중 농민들의 이주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왜 그러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 논제 3에서는 소설 속의 농민들이 이주 혹은 잔류를 결정할 때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이주나 잔류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자신의 생각과 소설 속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주 또는 잔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부수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문항 2】

□ 출제 의도

- 사회문화, 경제 교과서에 산재된 개념들(공동체의식, 이질성, 지니계수 등)을 연계하여 사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의 개별적인 의미와 이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논리적인 추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사회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문항 설명

- 제시문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이 공동체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자료와 자료해석 도구 및 분석결과 그래프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자료 분석결과와 해석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세 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들로 제시하였다.
- 논제 1에서는 주어진 가설적인 인과관계의 그림을 이용하여 사회이질성 변수들과 공동체의식 지표 간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의 개별적인 의미 및 이들의 연계 구조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논제 2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논제 1의 가설적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해석의 적절성 여부를 물었다.
- 논제 3에서는 논제 2의 추론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이질성의 증가가 공동체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를 요구하였다.

【문항 3】

□ 출제 의도

- 역사와 일상생활에서 매우 친숙한 소재인 나폴레옹과 손금을 이용하여 자유의지 또는 운명론과 관련한 수험생의 견해를 밝히게 함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사고 과정의 논리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세계사,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제재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문항 설명

- 제시문 (가)는 나폴레옹의 일생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각 손금이 의미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논제 1의 질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나폴레옹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일생에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을 엮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셋째는 운명에 대해 나폴레옹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내용이다.
- 논제 2는 비합리적인 미래에 대한 예건의 예들을 생각하여 분류한 후,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예를 제시하고 그러한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내용,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손금을 보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논제 1과 관련짓게 하고, 자신의 논리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것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논증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